

신체만족도에 따른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임경복

세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A Study on Attitudinal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Body Cathexis

Kyung-Bock Lim

Dept. of Fashion Design, Semyung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attitudinal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body cathexis. The data were collected via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419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Jechon and analyzed b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t-test and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Male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y than female students. Also it was found that height influenced to the body cathexis only to male students. 2. Attitudinal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3. Male and female students classified into satisfied and unsatisfied group and each group showed different attitudinal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4. Different attitudinal body images affected to the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body cathexis and gender.

Key words : body cathexis, attitudinal body image, clothing behavior

1. 서 론

사람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오감을 통해 습득하는데 그 중 상당부분을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모와 이미지 등은 대인지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 이유는 외모가 타인에게 가장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시적 도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외모를 가꾸기 위한 노력이 남녀 불문하고 진행 중인데 특히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년기 대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어떤 외모가 가장 바람직한지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이는 복식사에 나타난 이상적 신체상을 통해 알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형성된 이상적 신체상은 마르고 날씬한 여성, 근육이 있고 운동기능이 뛰어난 남성이라는 기준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맞추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시대가 만든 이상적 신체기준은 사람들의 심리적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신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곧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외모만족이 높은 것

이 아니라 외모에 만족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이윤정, 2004)는 결과에서 단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즉 외모에 대한 만족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함은 물론이고 자신감을 부여하여 사회생활에서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25-29세 여성의 62%가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62% 성형수술 경험", 2007)는 사실에서 보듯이 외모는 최근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듯 외모의 기준은 변화되지만 그 중요성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시대의 요구 기준에 따라 신체에 대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공에까지 연결된다(홍금희, 2006). 따라서 외모를 보다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보조도구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의복이다. 의복은 인류와 역사를 함께 해 온 도구로서 신체보호라는 기본적인 용도는 물론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발전되어 오면서 옷을 입는 주체인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되고 부여되는 의미도 달라진다. Creekmore(1974)는 신체 이미지가 의복에 반영되므로 긍정·부정적 신체 이미지가 의복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의복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달라질 것이고 이것이 의복 선택을 결정할 것이므로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를 신체이미지의 일부로

Corresponding author: Kyung-Bock Lim
Tel. +82-43-649-1440, Fax. +82-43-649-1724
E-mail: bok303@semyung.ac.kr

포함시킨 경우가 있다(조선명, 고애란, 2001). 그러나 이미지란 어휘가 원래 대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나 인상을 의미하므로 부분을 나누어 보기보다는 전체적 느낌 즉 심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개인이 신체 각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의 문제이므로 신체이미지의 형성 이전의 단계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체만족도는 신체 이미지라는 전체적 심상을 구성하는 선행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전제로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체감은 형성되어 있으나 사회생활에 진입하기에 앞서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인 청년기 대학생들의 신체 만족도를 알아보고 신체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신체 만족도에 따라 태도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 때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남녀를 구분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기 학생들이 외모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 의미에 영향을 미칠 신체 요인들, 나아가서는 결과로 나타나는 구체적 행동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란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신체이미지의 평가적 차원이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부정적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LaBat & DeLong, 1990). 즉 신체 전체나 각 부위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종과 성에 따라 다르고 의복행동과 관련된다(Secord & Jourard, 1953). 만족도는 스스로의 감정이지만 타인의 반응을 통해 학습되며 이것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되어 알아가게 된다. 고대부터 남성에게 요구된 것이 힘과 관련된 것이라면 여성에게는 미와 매력에 요구되어왔는데 특히 여기에서 미와 매력이라는 것은 시대적 기준에 따라 바뀌어간다.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 보니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문화적 미의 규범을 강하게 내면화하고(임숙자 외, 2002)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혜원(1999)은 남성은 신체적 성취에 관련된 주의를 집중시키므로 신체적 유효성에 가치를 두고 키와 근육을 강조하는 반면, 여성은 신체 매력으로부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날씬한 몸매를 기준으로 매력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특히 남성들은 작은 키에 불만을 느낀다고 했는데 키가 작은 남성들은 덜 성공하고 덜 남자다운 것으로 지각되어 존경받는 남성들을 우러러 본다고 표현했고, 키 작은 남성에 대한 편견이나 남성의 신체와 지위의 관계가 언어에도 드러난다(이승희 외, 2006)고 하였다. 반면 여성들은 체중에 대한 불만족이 높다(Cash & Hicks, 1990)고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신체만족도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자신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는 의복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으나 자아개념 특히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은하, 박우미(2003)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여성의 신체만족도는 인지유형과 상관없이 특정 부위에서 나타났고 착용의복 형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맞춤새와 신체만족도를 연구한 LaBat and DeLong(1990)에 따르면 여성들은 대개 하체 의복만족도가 낮는데 이는 신체 중 하체 만족도가 낮은 것에서 기인하며 이 두 변인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2.2. 태도적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란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 상으로 자아개념의 근본적 핵심요소이고 자아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조선명 외, 2001).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그와 연관된 느낌과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Cash(1990)가 제시한 신체이미지의 특성을 보면 다차원적이어서 개념 구조에 있어 주관적이고 태도적 부분은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이미지 변화 또한 감정적 신체변화와 자기 수용적이고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신체이미지는 사회에 존재하는 매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성이 좀 더 변화에 민감하다고 하였으며 셋째, 신체이미지는 항상 변화한다고 하였고, 넷째, 신체이미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불만족스런 신체부위이나 체형을 가리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동기화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Thompson(1990)은 신체이미지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첫째, 지각적 부분으로 신체이미지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 부분, 둘째, 주관적 부분으로 만족, 관심, 인식, 불안과 같은 태도적 측면을 포함하며 주관적 부분은 감정적, 인지적/행동적 차원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셋째, 행동적 부분으로 실제 신체변형이나 섭식행동 등을 포함하는 세 가지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신체이미지는 심상이라는 하지만 태도적 측면이 있어서 태도의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세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하겠다.

신체이미지는 이처럼 다차원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데 간단히 지각적, 태도적 신체이미지로 구분하여 자신이 신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하는 지각적 신체 이미지와 특별한 신체이미지나 전체적 외모에 대한 느낌, 만족에 초점을 둔 태도적 신체이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류은정, 김영희, 2008) 선행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를 사용한 지각적 신체이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시키거나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활용하거나 혹은 이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복행동과 연관시킨 것들이 많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태도라는 개념 자체에 인지적/감정적/행동적 측면이 포함되므로 구체적으로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ompson(1990)의 신체이미지 형성과정 이론에 따라 지각차원인 신체만족도와 신체이미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태도적 신체이미지 측면을 구분하여 신체만족도를 선행변수로 전체적 심상인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행동적 부분에 미치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의복 행동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 특성에 따른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을 연구한 결과 신체 이미지는 자각적 신체평가, 외모관심, 체중관심의 세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각각의 신체 이미지 특성들은 유행/의복관심, 의복과시성, 사회적 승인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유행선도력과 같은 다양한 의복태도 변인에 대하여 각기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하주연 외 2005). 류은정, 김영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이미지에 따른 외모무관심, 외모관심과 만족, 체중관심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각 집단 간 외모관리 동기과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명, 고애란(2001)은 소년기 여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신체 이미지에 불만족한 집단은 의복을 통한 신체 모습 향상 성향도 감소한다고 하여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대한 영향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2.3. 의복행동

의복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심리적 특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신체적 자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신체적 자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욕구가 있는데 이는 현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사이에 정도 이상의 차이가 생겨났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긴장상태를 해소시키려 하게 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이미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어떤 욕구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게 되며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에 나설 것임을 알 수 있다. 외모관리를 위한 도구에는 의복 이외에도 성형, 화장, 체중관리 등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의복의 다양한 기능은 일반 연구에 나타난 의복추구 혜택이나 평가기준 등을 보면 짐작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능적 평가기준과 같은 것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 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신체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외모관리에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의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 모습을 향상시키려 하며 신체적 자아를 표현하고 기분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하주연 외, 2005).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질수록 의복을 통해 신체모습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려 하게 된다고 하였다(김 아날리아 외, 2007). 따라서 다양한 혜택이나 기능 중에서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변인이 선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신체이미지의 각 차원의 영향관계와 의복추구 혜택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조선명(1999)의 연구에서는 의복추구 혜택 변인을 개성/자기표현, 기분 향상, 신체 모습 향상, 이성의 관심유도 등 신체이미지와 연관되는 것을 선별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감정적 차원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이미지는 의복추구 혜택 개념 중 신

체모습 향상을 가장 높게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이미숙(2000)에 따르면 신체평가가 심리적 의존성, 의복만족도, 연예인 모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심리적 의복의존성과 만족도는 신체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결국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은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신체 이미지 증진의 수단이라고 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신체만족도에 따라 태도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신체만족도의 차이와 부분별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구성요인을 밝힌다.

셋째, 성별로 신체만족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고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넷째, 성별, 신체만족도별 집단 간 태도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는데 설문지에는 신체만족도, 태도적 신체이미지, 의복행동,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1)신체만족도

자신의 신체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질문하였는데 Mclean(1978)이 사용한 Secord & Jourard(1953)의 body cathexis scale 중 대표적인 항목을 10항목만 사용하고 이외에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2) 태도적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에 대한 문항은 Cash(1990)의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적 설문문항들(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s) 중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하위척도들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조선명, 고애란(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로 하여 16문항을 사용하였다.

3) 의복행동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관련될 수 있는 의복을 통해 기대하는 혜택과 관련 행동을 질문하였는데 김양진(1996), 고애란, 이수경(1998)에서 사용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위의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전공, 키와 몸무게 등을 질문하였다.

3.3. 연구대상,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연구대상은 제천시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를 대상으로 편의표집에 의하여 2007년 12월 1일부터 15일에 걸쳐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70부의 설문지가 배포

Table 1. 남녀 신체부위별 만족도

신체 부위	남학생	여학생	t값
얼굴	3.62	3.24	4.10***
가슴	3.33	2.94	3.86***
등	3.56	3.12	4.89***
허리	3.34	2.93	4.09***
배	2.96	2.58	3.54***
엉덩이	3.28	2.64	6.30***
다리	3.26	2.55	6.40***
키	2.97	2.98	-.08
몸무게	3.16	2.49	6.42***
체형	3.38	2.57	7.95***
신체전체	3.47	2.83	6.62***

***p<.001

되었으며 439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20부를 제외하고 총 41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분포는 성별로 남학생이 177명(41.5%), 여학생이 242명(56.7%)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113명(26.5%), 2학년 178명(41.7%), 3학년 76명(17.8%), 4학년이 52명(12.2%)이었다. 전공별로 인문.사회계열 141명(33.0%), 자연계열이 125명(29.3%), 예.체능계열이 154명(36.1%)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for 10.1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요인분석, 회귀분석, 군집분석, t-test등이 사용되었다.

4. 연구결과

4.1. 성별에 따른 신체만족도

성별에 따른 신체만족도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전

Table 2.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부위

신체부위	성별		R ²	여학생 (t)	R ²
	남학생 (t)				
얼굴	.208 (3.549***)		.753	.191(3.751***)	.599
가슴	.205(3.262***)			.179(3.489***)	
등	.101(1.482)			.077(1.258)	
허리	-.038(-.564)			.109(1.627)	
배	.042(.753)			.133(2.043*)	
엉덩이	.020(.310)			-.060(-.945)	
다리	.152(2.555*)			.176(3.021**)	
키	.178(3.760***)			.050(1.047)	
몸무게	.014(.274)			-.007(-.108)	
체형	.283(5.040***)			.253(3.749***)	

*p<.05 **p<.01 ***p<.001

반적으로 남학생의 만족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지 키에 대해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여학생의 다리와 몸무게,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많이 낮음을 알 수 있다(Table 1). 이는 여성에게 미의 기대 수준이 보다 높으므로 남성보다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이를 만족시키려 신체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임숙자 외(2002)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부위를 확인한 결과 남녀 모두 얼굴, 가슴, 다리, 체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키가 여학생은 배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체형이 신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목구비가 예쁜 것 보다 작은 얼굴과 균형잡힌 날씬한 몸매가 중요하다 한 김은주(2001)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다음으로는 남

Table 3.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 및 문항	요인적재값	고유값	누적변량및 신뢰도
요인 1(감정적)			
나는 신체적 매력이 있다.	.847	3.48	21.77 (.889)
내 몸은 섹시한 매력이 있다.	.832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817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741		
웃을 입지 않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734		
요인 2(행동적)			
나는 외출 전 몸치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800	2.36	43.41 (.893)
항상 멋있게 보이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770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754		
내 차림새가 좋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727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	.705		
나는 언제나 멋져 보여야 한다.	.621		
요인 3(체중관심)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이 쓰인다	.897	2.36	58.09 (.860)
나는 살이 찢까봐 늘 걱정이다.	.860		
절식, 단식으로 체중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다.	.844		
요인 4(인지적)			
나는 내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다(R)	.822	1.62	68.21 (.604)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R)	.790		

Table 4. 의복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 및 문항	요인적재값	고유값	누적변량및 신뢰도
요인 1(이성 관심유도)			
이성의 관심을 끄는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하다.	.872	3.12	22.34 (.862)
이성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옷을 입는다.	.848		
여성(남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옷을 입는다.	.705		
내 몸매가 이상형에 가깝게 보이도록 옷을 입는다.	.687		
요인 2 (자기만족)			
옷을 잘 입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810	2.82	42.50 (.858)
내 옷차림은 언제나 기분에 영향을 준다.	.771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고르려 노력한다.	.661		
내가 입는 옷을 자존심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562		
기분을 좋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옷을 갈아 입는다.	.500		
요인 3 (타인지향)			
나는 특이한 옷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884	2.49	60.32 (.865)
주위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옷을 고른다.	.860		
나는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입으려 신경쓴다.	.713		
요인 4(신체모습 향상)			
내 신체의 불만부분을 가려주는 옷을 고른다.	.903	1.98	74.47 (.888)
옷으로 신체 불만을 감추려 노력한다.	.896		

너 모두 얼굴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Table 2) 이는 최근의 얼짱 신드롬, 동안얼푹처럼 얼굴형을 중요시하는 현상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남학생의 키가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남성은 신체적 성취에 주의를 집중시키므로 신체적 유효성에 가치를 두고 키와 근육을 강조한다(강혜원, 1999)는 사실과 청소년기의 남학생이 가장 고치고 싶어하는 외모가 키(장휘숙, 1993)라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이다.

4.2.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요인분석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16문항과 의복행동에 대한 14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법,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고유치가 1 이상인 문항을 추출한 결과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태도에 대하여 각각 네 요인이 나타났는데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았다.

먼저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

낌이 각각 감정적, 행동적, 인지적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었고 그 외에 체중관심이라는 요인이 독립적으로 나타나 현재 청년층의 관심사에 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감정적 요인은 하주연 외(2005)의 연구에서 나온 자각적 신체평가, 인지적 부분은 외모관심과 유사하였으며 체중관심은 동일한 요인이었다.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대해서는 네 요인 중 감정적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의복행동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이성관심유도, 자기만족, 타인지향, 신체모습 향상의 네 요인이 나타났는데 이성관심유도와 신체모습향상 요인은 조선명, 고애란(2001)의 연구결과와 같았고 나머지 두 요인은 각각 의복 착용 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입는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보았다.

4.3. 성별, 신체만족도 집단별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차이

Table 5. 신체만족도 집단별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차이

종속변수	성 별	남 학생			여 학생		
		만족	불만족	t	만족	불만족	t
신체이미지	감정적	3.65	2.75	7.48***	3.14	2.52	7.89***
	행동적	3.64	3.35	2.67***	3.70	3.54	1.96
	체중관심	2.83	2.73	.54	3.17	3.72	-4.25***
	인지적	3.37	3.57	-1.43	3.75	3.83	-.83
의복행동	이성관심유도	3.66	3.10	4.52***	3.23	2.94	3.16**
	자기만족	3.70	3.24	3.90***	3.57	3.49	.94
	타인지향	3.18	2.80	2.53*	3.09	2.87	2.18*
	신체모습향상	2.86	2.92	-.39	3.39	3.73	-2.90**

*p<.05 **p<.01 ***p<.001

성별 신체만족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고자 신체만족도 점수들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 여학생 모두 각각 두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남학생은 만족집단이 68명(38.4%), 불만족집단이 109명(71.6%), 여학생은 만족집단이 113명(46.7%), 불만족집단이 129명(53.3%)로 구분되었다.

성별, 만족도 집단별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만족도 집단별로 감정적, 행동적 이미지에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은 감정적, 체중관심 이미지에 차이가 있었다. 인지적 이미지는 만족 정도에 상관없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행동적 이미지 역시 집단에 상관없이 모두 높은 편인 반면 남학생의 경우 체중관심은 만족도와 상관없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다른 부분의 만족도가 체중에 대한 불만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족 집단별로 가장 차이가 크게 보이는 부분은 감정적 신체이미지인데 즉 신체의 평가정도에 따라 신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느낌에 비교적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복행동에 있어서 성별에 상관없이 이성관심유도와 타인지향적 의복태도는 만족집단이 불만족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만족집단에서 자기만족을 위한 의복행동이 유의하게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불만족 집단에서 신체모습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의 의복선택 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명(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은 부정적 감정을 가질수록 의복을 통해 신체모습을 보완 향상시켜 긍정적 기분을 가지려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4.4. 성별, 신체만족도별 태도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별, 신체만족도 집단별로 태도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 7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이성관심 유도하려는 의복행동에는 집단에 상관없이 감정적, 행동적 이미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만족에는 감정적, 행동적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만족 집단에서는 행동적, 체중관심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다. 타인지향적 행동에는 만족집단의 행동적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고 불만족 집단에서는 행동적, 체중관심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모습향상에는 만족집단의 체중관심이 영향을 미치고 불만족 집단에서는 행동적, 체중관심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류은정, 김영희(2008)의 연구에서 체중관심 집단은 외모관리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들의 비만도가 타 집단보다 높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인지적 이미지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체중관심, 행동적 이미지는 다양한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설명력을 비교할 때 집단에 상관없이 신체이미지 요인들은 자기만족을 위한 의복행동에 대한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집단별로 만족집단의 신체모습 향상에 대한 의복행동의 값이 불만족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만족 집단이 보다 의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여학생의 신체만족도 집단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성관심 유도에는 집단에 상관없이 감정적, 행동적 이미지가 정적 영향을 미치고 만족집단의 체중관심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다. 자기만족에는 집단에 상관없이 행동적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고 타인지향적 의복행동에는 만족집단에서 행동적, 체중관심 이미지가 불만족 집단에서는 행동적 이미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체모습향상에 대한 의복행동에는 만족집단의 체중관심 이미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학생도 역시 감정적 이미지는 의복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적

Table 6. 남학생의 신체만족도 집단별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만족 집단					불만족 집단				
		감정적	행동적	체중관심	인지적	R ²	감정적	행동적	체중관심	인지적	R ²
이성관심유도		.326**	.341**	.140	.050	.390	.206*	.426***	.131	.152	.392
자기만족		.245*	.558***	.071	.011	.543	-.021	.551***	.219**	.092	.424
타인지향		-.009	.451**	-.050	-.091	.196	.092	.289**	.269**	-.123	.223
신체모습향상		.142	.076	.487***	-.163	.405	.003	.286*	.287**	-.033	.193

*p<.05 **p<.01 ***p<.001

Table 7. 여학생의 신체만족도 집단별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만족 집단					불만족 집단				
		감정적	행동적	체중관심	인지적	R ²	감정적	행동적	체중관심	인지적	R ²
이성관심유도		.317***	.379***	.235***	.104	.488	.228**	.296**	-.069	.114	.190
자기만족		.146	.582***	.135*	.111	.529	.179*	.432***	-.073	.160	.312
타인지향		.156	.292**	.278***	-.077	.276	.040	.369***	.066	-.082	.139
신체모습향상		.001	.115	.432***	.125	.237	-.109	.020	.159	-.013	.034

*p<.05 **p<.01 ***p<.001

으며 인지적 이미지는 모든 의복행동에 유의한 영향력 변수가 없었다. 결국 외모관심의 유무는 의복행동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또한 만족집단에서 이성관심 유도 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의 설명력이 월등한 것이 흥미 있으며 이는 남학생과도 구분이 된다. 여학생의 경우 신체 불만족 집단에서 타인지향 행동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외모만족도가 유행관심, 전반적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송경자(1998)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남녀 모두 신체만족집단에서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이미지 변인이 보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설명력도 큰데 여학생의 설명력 값이 크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남학생보다 더 다양하다. 이는 여자가 사회·문화적 미의 규범을 강하게 내면화하고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임숙자 외, 2002)는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보겠다. 즉 자신의 신체에 긍정적인 여학생 집단일수록 적극적으로 의복행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복행동을 통한 신체모습 향상 행동에는 신체 만족집단이 월등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의 긍정적 반응이 기대되던 의복을 통해 이상적 신체상을 이루려 적절한 행동을 시도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면 벗어나려 시도한다(Duval et al, 1992)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외에 모든 집단에서 의복행동 시 자기만족을 위한 동기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청년층의 자아개념이 상당히 독립적이고 자기지향적임을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감정적 요인이 의복행동에 대한 유의한 영향이 적다는 사실은 조선명, 고애란(2001)의 연구에서 감정적 차원이 인지·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고 인지·행동적 차원에 대한 영향이 의복추구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의복행동은 신체에 대한 감정적 부분보다 행동적 부분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태도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의 신체만족도가 여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부위를 확인한 결과 체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키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태도의 구성요소인 인지/감정/행동의 세 차원과 체중관심이라는 네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의복태도는 이성관심유도, 자기중심, 타인지향, 신체모습 향상의 네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집단 구분 결과 남, 여 모두 각각 만족/불만족의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집단별로 남학생은 감정적,

행동적 신체이미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은 감정적 이미지, 체중관심에 유의차가 있었다. 의복행동 중 남학생은 신체모습 향상, 여학생은 자기만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신체만족도 집단별 태도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다양한 신체이미지 요인이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감정적, 인지적 태도보다 행동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학생은 불만족 집단에서 체중관심이 다양한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은 만족 집단에서 더 높았다는 차이가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불만족 집단보다는 만족집단에서 다양한 태도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은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신체모습 향상을 위한 의복 행동이 불만족 집단에서 월등히 높다. 둘째, 태도적 신체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감정적 차원이지만 실제 의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동적 차원이다. 셋째 대학생의 경우 태도적 신체이미지가 신체만족도와 무관하게 자기만족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청년층의 의복 착용 패턴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타인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충실한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달리 신체에 불만족하는 집단에서 체중관심이 다양한 의복행동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만족/불만족 집단에서 체중 관심이 유의하게 차이가 없다는 점과 함께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체중에 의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여학생은 신체에 불만족한 집단이 체중관심도 높고 의복을 통해 신체모습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체중관심이 직접 의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이들이 체중에 대한 관심을 의복 보다 체중관리와 같은 보다 적극적 방법으로 해소시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신체모습 향상을 위한 의복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가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의류산업 측면에서 4P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품과 광고를 위한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제품요인 중 디자인 개발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다. 남성용에서는 키를 중요시 하므로 키가 커 보이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여성보다 불만족 집단의 의복구매도 활발하다고 나타났으므로 일반 사이즈를 벗어난 큰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에 대한 의복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체형을 중요시하고 신체모습 향상을 위해 의복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광고나 홍보에 있어서는 남녀 학생 모두 자기만족의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이성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고 여학생은 자기만족 성향이 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타인이 얼마나 많은 외모관리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어 자극이 필요할 것이며 제품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되는 개성에 대한 어필이 주효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신체만족도와 성별에 따라 태도적 신체 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았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지역적으로 제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청년층에게 확대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강혜원. (1999). *의상사회심리학*. 서울:교문사. pp. 253-254
 고애란, 이수경.(1998).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 성향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7), 931-941.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 (2007).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 행동 영향요인. *한국의류학회지*, 30(11), 1538-1549.
 김양진. (1996). *유행의복 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 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류은정, 김영희. (2008). 남자 대학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과 동기. *대한가정학회지*, 46(1), 63-72.
 송경자. (1998).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위은하, 박우미. (2003). 중년여성의 신체부위 인지유형에 따른 신체 만족도와 착의 의복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12-1123.
 이미숙. (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 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승희, 김미숙, 홍진숙.(2006). *패션과 소비자 행동*. 서울:시그마 프레스. p. 2.
 이윤정. (2004). 신체통제에 대한 신념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 회지*, 28(7), 974-982.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양윤. (2002). *현대의상사회심리학*. 서울:수학사. pp. 81-84
 장희숙. (1993). *청년심리학*. 서울:도서출판 상승. p. 5.

조선명. (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 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 성향과 신체태도에 따른 의복 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715-726.
 25-29세 여성 62% 성형수술 경험. (2007. 2. 22). *한국일보*. p. 9.
 홍금희. (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비만도 및 신체 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2), P348-357.
 Cash, T. F. & Hicks, K L. (1990). Being fat vs thinking fat: relationships with body image, eating behaviors and well-be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2), 327-341.
 Cash, T. F.(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 Pergamon Press.
 Creekmore, A. M. (1974). Clothing related to body satisfaction and perceived peer self, *Research Report 239, Michigan: Technical Bulletin,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Duval, T. S., Duval, V. H. and Mulilis, J. P. (1992). Effects of self-focus, discrepancy between self and standard, and outcome expectancy favorability on the tendency to match self to standard or to withdra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340-348.
 LaBat, K. L. and DeLong, M. R.(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Winter, 43-48.
 Mclean, F. P. (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Secord, P. F. & Jourard, S. M.(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5), 343-347.
 Thompson, J. K.(1990). *Body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 Pergamon Press.
 (2008년 3월 17일 접수/ 2008년 5월 25일 1차 수정/2008년 11월 26일 게재확정)